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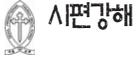
☉ 2007년도 표어 ☉

교회여 진리의 빛으로 다시 서라
-민족을 깨우는 우리교회 (사 51:17, 롬 13:11)

☉ 행동지침 ☉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성도의 애가

(시편 39:1-13)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시인은 심한 절고 중에도 묵묵히 고난을 견디며 불평을 토하지 않으려고 하나 인생이 무상함과 무의미함에 생각이 미치자 마침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깊은 고뇌를 쏟아 놓습니다. 그리고 소망은 주께 있으므로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고정 시킵니다.

시편 39편은 인생의 덧없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시인은 본편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습니다. 영어의 amusement(즐거움)은 muse(묵상, 심사숙고)와 부정사 a(아니다)의 합성어로 생각이 없다(not thinking)는 뜻입니다. 시편 39편은 이것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덧없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시편 38편은 병들어 죽게 된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39편에서는 다윗이 인생의 덧없음을 말합니다.

시편 39편의 제목인 여두둔은 다윗 외에 사람으로 처음 나온 개인 이름입니다. 여두둔은 아삽과 헤만과 함께 다윗에 의해 임명된 음악가 중 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공예배를 인도했습니다.

1. 침묵의 고통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히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1절).

시인은 침묵하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속에서는 뜨거운 불이 끓어 오르고 있지만 그는 그들 앞에서 말하기를 거절했습니다.

다윗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주변에 악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로 가져가 고뇌를 털어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같은 행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2. 인생무상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4절).

사람을 쫓아다니며 말을 해봐야 돌아오는 것은 허무뿐입니다. 다윗은 인생무상을 말합니다.

5,6절에는 히브리어 'hebel(허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영어로 a breath, in vain으로 헛되다는 뜻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전 1:2)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성공을 해도 그것은 모두 헛수고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같은 허탄한 인생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합니다(약 4:13-16).

시편 39편에는 ‘허사’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그 중 2번은 쉼으로 끝납니다(5, 11절). 쉼은 중지하라, 숨을 잠깐 끊고 소리를 높이라는 뜻의 음의 부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강조해서 읽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합니다(4절).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4절은 고난이 극심하여 죽음에 직면하였다거나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시간이 너무 짧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이 짧고 불확실함을 분명히 알게 하셔서 자신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7절).

다윗은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이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는 인생이 덧없음을 배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뜻하신 어떤 것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인생의 덧없음은 어떤 사고가 아니고 뜻이 있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수수께끼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의 날은 짧은 것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이 짧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3. 나그네 인생

약하고 빨리 지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심하게 다루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읊과 다윗은 같은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작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은 왜 간섭하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영향을 끼칠 수도 없고 해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까?’

그 대답은 매우 모순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후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 서야 할 나그네 인생입니다. 12절의 나그네는 다른 뜻으로 외국인입니다. 나그네는 또 다른 말로 순례자입니다. 결국은 나그네 철학을 가지고 인생

을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순례자의 모델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주셨지만 결코 그 땅을 소유한 적이 없었습니다. 신약에서도 순례자의 모델을 수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벧전 2:11, 히11:13).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지만 그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 산다면 우리의 삶이 짧든지 길든지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은 낭비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천 년처럼 살고, 천 년을 하루처럼 사는 것이 성도가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시인은 심한 절고 중에도 묵묵히 고난을 견디며 불평을 토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인생의 무상함과 무의미함에 생각이 미치자 마침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깊은 고뇌를 쏟아 놓습니다. 그리고 소망은 주께 있으므로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사람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을 우연이라고 생각하면서 절망합니다. 또 그 원인이 타인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참회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징계라고 생각하면서 순응하게 됩니다.

시인은 자신의 절고가 죄 때문임을 알고 있는 까닭에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합니다. 그는 조용히, 부르짖으며, 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12절). 다윗은 나그네 같은 자기 생명이 떠나 없어지기 전에 용서받은 증거로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합니다(13절). 오래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용서 받은 자로 살다가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화려하게 살아온 삶일지라도 징계아래 죽는다면 실패한 삶이 됩니다. 징계 받아 죽기보다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XK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100만인 전도 운동본부 발족

지난 1월14일자 순례자를 통해 우리교회가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로부터 “100만인 전도운동 시범 교회”로 선정되었음이 발표된바 있다. 우리교회를 크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감사드리며 전도운동을 효율적으로 시작하기 위하여 우리교회 내에 “서울교회 백만인전도운동본부”(본부장 이종윤 목사 단장 김광신 장로)를 설치하고 다음과 같이 전국교회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귀한 사명을 감당

하게 되었다. 100만인 전도운동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91회 총회때 결의한 1907년 대부흥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전도와 부흥의 열기를 전국교회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평소 전도와 부흥에 열심있는 교회들을 시범 교회로 선정했다. 모든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기도와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

<서울교회 100만인 전도운동본부 조직>

- 본부장: 이종윤 목사
- 고 문: 임광식 이용선 이남호 김태기 박두영 장로
- 지도위원: 이규정 윤영국 한상은 서명철 정수길 장석남 이태훈 임규현 목사, 지혜영 박광일 전도사, 황선철 목사 박금실 전도사, 주원순 선생
- 자문위원: 김영한 김재진 킨슬러 목사
- 단 장: 김광신 장로

분과	분과장	지 도	위 원
기획	이갑진	이규정/이태훈	김금준 김은태 은기장 윤명구 한상준
진행	오정수	서명철	조정식 최학인 최광성 강석우
홍보	정병무	정수길/황선철	이영기 신동기 허숙 김민철
전도	윤찬오	장석남/박광일	임훈규 이완형 신용식 최규초 손영호 박이선 박옥 김옥 이해경4 박정임 배준길 김은순 이경구 박태선 김한성 김상태 탁경준 최금숙 김인수 김혜중
기도	노문환	지혜영	김대호 왕경래 성준경 최양진 이영희 이인선 홍승자 김미향 이현주 양정실 이영숙1 김명숙1 이인숙2 김영식 전행자 이미송1 김진영
행정	김영준	한상은	서문석 최형열 김규태 김훈 박광식 김동진
등원	윤봉준	윤영국/임규현/박금실/주원순	김상철 박두호 민순구 진돈 김영희1 박명철 송인수 안홍희 홍창배 유을상 이재운 박재숙 위성남 김미선 최종희 남태순 김숙자 이규희 임송자 박현영 배병이 한주찬 박정순1 한인진 박미혜 이학명 장낙희 이승래 윤숙희 서명조 한성옥 정동학 김정은 강낙훈 황노전 이남성 김재근 김해원 김선영1 박춘자1 주동재 이신애 한광파 이상태 박영자 권장환 나기태 오치열 김복순 이동만 전정숙 윤종덕 김차순 오승민 서경애 이종형 이은희1 김시환 이은옥 김광룡 이영숙4 송병석 주경자 이강진 양춘경 원용범 이종찬 최미아 임옥근 오행숙 하인선 한춘홍 김광욱 이영희7 윤금숙 손태기 차명숙 권혁우 고정숙 김복승 박연순 김대웅 김예환 박정수 정연택 이양철 이해순 이찬호 한종우 백정순 서경학 안분선 임분도 김형택 박윤혜 김중자 이순례 송인권
재정	노송성		

성경 일천독 대장정

오늘 성경읽기표 배포 - 1차 마감: 1월31일(수) 까지
 설명회: 2부 예배 후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평양대부흥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2007년 한 해 동안 우리교회는 이 땅에 대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 번 일으키도록 기도하면서 이 역사가 우리교회로부터 시작되도록 성경일천독 대장정을 시작하였다. 성경일천독 대장정은 2007년 한 해 동안 성경을 일독하는 이가 적어도 1000명 이상 나오도록 하는 전교인 참여 프로그램으로 1000등분한 한반도 지도에 성경을 통독한 성도들의 이름과 고유번호가 채워지게 된다. 성경 일독 성도의 수가 1000명을 넘게 되면 바다를 메우게 된다. 이런 은혜로운 자리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공금증을 풀어줄 설명회가 오늘 2부 예배를 마친 후 101호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열린다. 성경 일천독 대장정의 첫발을 뗀 성도들은 필히 이번 설명회에 참석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은 성경일천독 대장정 준비위원회에서 알려드리는 사항으로 참고하기 바란다.

1. 지난 주간 참가자: 총 458명(45.8%)(1월26일 금요일 정오현재, 인터넷 신청 43명 포함)
2. 모든 참가자는 개인을 중심으로 한다.
3. 2007년 통독자만 해당. 단, 2006년 1월 1일 이후 필사자는 인정된다.
4. 연료하신 분의 경우는 듣는 성경도 통독으로 인정된다.
5. 참가신청은 사무국에 비치된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사무국으로 제출하시거나, 현금함(또는 현금 주머니)에 넣으면 된다.
6. 지방 거주, 군입대, 해외 성도 등은 교회 홈페이지(www.seoulchurch.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전 교 인 ■ 전도학교 수료토록 -2월·3월중-

백만인 전도운동 본부는 전교인 전도학교 수료를 1차 목표로 정하고 전도의 불을 붙이기로 했다. 지금까지 전도학교를 이수한 이들은 배운 바를 실행하고, 아직 전도훈련을 받지 않은 모든 성도들은 1주 과정의 단기 전도학교를 이수토록 한다. 제직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모든 섬김위원들도 발표될 시간표를 따라 수강토록 한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반, 아침반, 오후반, 저녁반으로 나누어 각각 1시간 30분씩 1주일 과정으로 2개월 동안 전전후 후폭력을 가할 것이다. 1개 반 수강자는 50명으로 제한하며 오전반 2개, 오후반 2개, 저녁반 1개 등 5개 반으로 운영되며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발행 수료증이 수여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순례자에 발표되며 등록비는 1인당 15,000원으로 개인전도 훈련교재대로 지출된다. 2월 첫 주에 등록하실 분은 31일(수)까지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20기 전도학교 수료자 명단>

- 훈련생과정 (16명)**
- 주일반: 김미향 김수복 김용주 신태봉 옥희숙 이영숙 임대훈
 - 화요일반: 김유경 박미경 백정숙 성수영 양호경 우경애 윤숙지 이영미 현승희
- 훈련자과정(15명)**
- 주일반: 은기장 김옥 김상태 김일순 박정인
 - 화요일반: 박이선 김은순 박옥 박길희 이해경 진경옥 오종래 나기태 김규희 위성남

디아스포라부 겨울수련회 2월2일(금)-2월3일(토) 교회에서

디아스포라부 겨울수련회가 2월2일(금)부터 3일(토)까지 이틀간 교회에서 열린다. 디아스포라부 겨울수련회는 ‘구원의 약속 안에 거하라’를 주제로 이종윤 목사, 윤영국 목사, 박광일 전도사가 인도하게 된다. 김정일 공산독재 정권을 탈출한 탈북난민들이 말씀 안에서 굳게 서도록 기도한다.

비전2020운동 후원자 명단

고석규 곽속 권장환 권혁우 김수영 김계중 김금준 김민희 김복녀 김상옥 김상태 김선영 김성준 김승배 김순덕 김옥 김원웅 김유경 김은애 김재혁 김지희2 김찬웅 김형상(최금숙) 김형희 김혜경 나미용 문옥희 민순구 바울선교회 박영숙 박찬성 배재송 손명근 손태기 송옥혜 안창휘 안홍희 양인수 여윤지 오찬주(서정원) 유기찬 유을상(윤숙희) 윤명미 이갑연 이병현(제경원) 이완형 이원희 임귀순 임병우(임혜립) 임송자 임충식(신선주) 정은순 정찬주 탁경준 한길동 한상은 한상준 홍광숙 홍석현 홍성주 홍재식 황선철(다음 주 계속)

대학부 성경통독수련회

부흥!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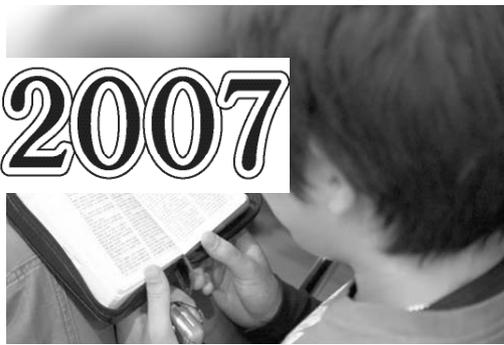
김다희 성도(대학부)

매년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약속하며 드린 기도제목들 중에는, 항상 지키지 못해 안타까워했던 것 중에 '성경일독'이 있습니다.

2007년, 올해만큼은 기필코 '성경일독'을 하겠다며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더 이상은 양치기 소년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1월, 이종윤 목사님께서 '성경1천독 대장정'을 선포하셨을 때 '이번에는 꼭 일독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더욱 견고히 굳어졌습니다.

때마침 성경1천독에 발맞추어 일주일간의 대학부 성경통독 수련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일독을 마음으로만 담아둘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22~26일 아침 10시부터 밤 9시까지의 하루 일정으로 통독수련회가 열렸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온전히 시간을 바칠 수 없는 상황이 아쉬웠지만, 아르바이트가 끝난 후에도 참여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창세기부터 일독을 시작했습니다.

레위기를 거쳐 민수기까지 오면서 지루함을 견딜 수 없어 몸부림 치기도 했지만, 은혜가운데 고비를 넘기고 신명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직 하루라는 시간이 더 남았고, 얼마만큼의 분량을 읽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그 계획하심이 얼마나 깊은지 깨달아가면서 여태껏 느껴보지 못했던 감격을 끝까지 누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대학부 통독수련회가 불씨가 되어 서울교회 청년들이 말씀위에 바로서길 바라고, 서울교회 성경전독 대장정에 모든 교인이 참여해 2007년, 다시 한 번 100년 전 부흥이 일어날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00만인 전도 운동을 시작하며...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김광신 장로 (100만인전도운동본부 단장)



전도하라는 말만 들어도 나는 절대로 전도 할 수 없다고 선포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나는 예외이고 적격자가 아님을 내가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평양 부흥 100주년이 되는 2007년에는 그 선포가 무효가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용기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일에 내가 절대적이라면 선택의 문제를 초월하여 필수적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교회는 100만인 전도 운동의 선포를 일리고 모든 성도가 전도해야 하는 책임을 주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남녀의 구분도 없고 나이의 차별이 없으

며 신앙의 짧고 긴 것을 초월합니다. 주일 날 교회에 예배하러 오면 2인 1조가 되어 지정된 지역에 가서 축호 전도, 노방전도에 임해야 합니다. '믿지 않을 거야, 쫓겨날 거야, 수치만 당할 거야' 미리 걱정하지 말고, 전도는 내가 하지만 믿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열매를 거두십니다. 나를 믿거나 신뢰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결과는 수고한 이상이 될 것입니다.

서울 교회 100만인 전도 운동 본부는 2007년 말까지 5,000명의 전도 목표를 설정하고 총력 매진하게 됩니다. 짝 믿음이 변하여 가정에 행복이 찾아오고 완강하게 버티던 자식들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고집 세던 친척도 예수를 영접하고 가깝게 지내던 불신 친구도 내가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다고 고백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전도의 열매가 익으면 100만인 전도 운동 본부의 임무는 세계 선교를 위한 또 다른 전도 역사로 옮겨 갈 것입니다.

대학부 겨울수련회 초대이글

부르심!

-대학부 겨울수련회-

노문환 장로 (대학부 부장)



젊음의 열기로 가득 찬 대학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읽기의 뜨거운 바람이 불고 있는 대학부와와 보십시오.

여기 젊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특별한 모임이 있습니다. 꿈을 꾸고, 기쁨을 나누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인 대학부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고 애태우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참사랑이 그리운 사람이 있습니까? 머뭇거리지 말고 모두 오십시오. 오셔서 함께 우리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함께 우리의 고민을 풀어가며 형제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귀한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대학부와와 보시지 않은 젊은이들에게 2007년 대학부 겨울 수련회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되어 여러분을 기쁜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2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아름다운 강원도의 한 수양관에서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말씀과 기도의 향연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준비된 잔치에 오셔서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의 은혜에 꼭 잠기는 좋은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들과 성도님들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을 배우며 기도의 용사들로 세워져 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위에 굳건히 서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로 우뚝 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들은 우리 미래의 소망입니다. 우리교회와 우리나라 미래의 지도자들입니다.

찬양예배 특별 순서

시온찬양대와 아멘관현악단

- 합창과 바이올린 :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LLOYD LARSON곡)
 - 합창 - 시온찬양대
 - 바이올린 - 김지영(아멘찬양대원)
 - 피아노 - 김민숙집사
- 바이올린 독주 및 King Medley (Arr. by David Ritter)
 - 바이올린 - 구희원(아멘찬양대원)
 - 피아노 - 박승기(아멘찬양대원)
- 합창과 트럼펫(Katholisches Gesangbuch곡)
 - 합창 - 시온찬양대
 - 트럼펫 - 손영호집사

만민에게 전도- 새가족



송행의 성도(3교구)

하나님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
고 세상을 사는 저
에게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사랑과
공활로 임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
나님을 영접한 지금은 제가 살아온
그 어떤 날들보다 기쁨과 평안이 넘
치고 있습니다.

작년 시월 중순, 친구를 따라 양화진 외국인 선교
사 묘지를 간 적이 있는데 '양화진'이라는 외국인 선
교사에 관한 책을 구입해 읽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구원 받아야 할 죄인이며 늘 순종하고 감사하며 살아
야 한다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비오는 어느 주일 오후 나는 무엇에 이끌리
듯 차를 몰아 양화진의 선교사님들 묘지를 찾아갔고
그 중 한 묘지 앞에서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 최초 선교사이신

언더우드 목사님의 묘지였고, 그 주위에 알렌, 스크
랜턴, 아펜젤러, 베델 등 여러 선교사님이 잠들어 계
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리고 11월 중순 경 집에서 가까운 서울교회로 예배

주님을 알게 되었기에 저는 하루하루가 아깝고, 듣고
싶은 말씀, 하고 싶은 성경공부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면서 나 스스로와 가족
들에게 크리스천으로서 분이 되는 삶을 살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스한 손길을 펼치는 선
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서울교회에 와서 잘 정착할 수 있도
록 도와주신 새가족부 모든 교사님들,
금요기도회 여러분, 그리고 루디아 전
도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
일예배는 물론이고 수요예배와 금요기

하나님이 쓰실 만 한 도구로...

-내 안의 가라지를 뽑으며-

를 드리러 왔다가 이종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았으며 한편으로는 새롭게 삶의 도전을 받
았습니다.

우리 서울교회는 올해 평양 대부흥 100주년이 되
는 해로 그 날의 부흥을 돌이키기 위해, 또 우리 후세
들이 살아가야 할 조국의 앞날을 걱정하며 "교회여
진리의 빛으로 다시 서라-민족을 깨우는 우리교회"
라는 표어를 내걸고 세계복음화, 교회천국화, 문화의
기독교화를 위해 힘쓰시는 줄 압니다. 이렇게 뒤늦게

도회 등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만하지 않고 내 안의
가라지를 뽑아 좀더 겸손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쓰실만한 도구로서
준비된 자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007년 섬김위원 요람 판매
-1층 서점에서-

2007년 섬김위원 요람이 발간되었다. 요람의 가격
은 5,000 원으로 제지들과 섬김위원들이 자세히 나
와 있다. 성도들은 구입하여 교회의 여러 사역에 적
극 활용하기 바란다.

광야의 소리- 2007 순례자 캠페인

내가 먼저 인사합시다



우리는 태어나 처음 말을 배울
때 먼저 엄마, 아빠로부터 시작하여
"안녕, 바이 바이"등을 익히게 됩니
다.

인사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자신
의 겸양을 드러내는 첫 의사표시가

될 것이며 나아가 영적교감을 갖게
되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
한 사람의 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후 우리들의 모습은
그 자리에서 멀리 떠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극단적인 개인이기주의 풍조가 세상을 싸늘
하게 만들고 높은 벽을 쌓아 점점 삭막해져 갑니다.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먼저 하라고 하신 주
님의 황금률이 행함 없는 지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패역한 세대의 물결에 떠내려 갈 수는
없습니다. 어둠을 밝히고 부패를 막아야 할 사명자들
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신행일치의 첫 단추로
"내가 먼저 인사하기"를 외쳐봅니다. 우리 모두가
"안녕하세요. ○○○ 형제님(집사, 권사, 장로님)"하
며 반겨 인사함으로 받는 자 보다 먼저 주는 자의 기

쁨을 누리어 사랑의 화답으로 하나 되는 우리교회 교
우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써 외면하거나 다른 생각에 빠져서 눈은 상대방
을 보면서 아무 표정이 없어, 어색함을 자아내는 어
리석은 자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서 '내가 먼저'를 덕목으로 삼기를 부탁드
리며 구원의 감격을 담아 기쁨으로
주고받는 인사가 연합하여 동거하
는 아름다움으로 승화되어 주께 영
광 돌리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빕
니다.

“안녕하세요”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웃기를 여미
는 우리 모두가 되어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서
울교회로 다듬어 가는 역군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삼
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2007농어촌100교회운동지원현황 (다음주 계속)

노회	교회명	교역자	후원자	구좌(각)
지정교회	신현교회	유기중(목)	김상태, 김숙자	1
	영덕읍교회	황우경(목)	김은태, 전하미	1
	모산교회	유한명(목)	최규초, 노순례	1
	대은교회	박태수(목)	양춘경	1
	고향교회	김권한(목)	하인선, 남태순	1

동정

- 이종운 목사는 30일(화) 북한구원운동 정기총회를 소집한다.
- 이사 : 김재중 집사 김유경 집사 가정(12교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0-1 삼성아데너루체 B-2103 T. 031-726-2835
- 특남 : 3교구 김진영, 유희영 성도 가정
- 특녀 : 13교구 최상도 유승운 성도 가정
- 개업 : 장정옥 집사(13교구) 미앤휴 에스테틱(피부관리) T. 552-0203
- 헌상은 정수길 장성남 이태훈 목사 총회전도학교 참석(1/29-2.1 부산)
- 주간 식당 봉사 : 마리아전도회(1, 28) 에스더전도회(2, 4)
- 금주의 식사 : 양상용 집사 · 박계순 집사 가정 (자녀결혼 감사하며)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30분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100만인 전도운동에 나도 동참하도록
2. 일천명 성경통독대열에 나도 참여하도록
3. 교회예산 60%이상 남을 위해 쓸 수 있도록
4. 겨울성경학교 · 수련회 은혜롭게 준비되도록
5. 국가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애국 · 애족 하도록

■ 교회오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